

十一月二十八日 橫城面邑上里 앞 논에서 朴光善氏(四五)에 의하여 發見되어 同郡廳에 保管中인 龍頭鐘(徑二二cm, 高四五cm) 一, 釜(徑三五cm) 一, 同蓋(徑二五cm) 一, 鐵製香爐(徑二〇cm) 一, 其他 珍시 三, 술잔 三이다.

◎ 廣州 道馬里白磁窯址 發掘調査

國立博物館에서는 十二月 一日부터 約十日間豫定으로 京畿道 廣州郡 退村面 道馬里 山二五〇番地의 一에 所在하는 李朝初期의 白磁窯址를 發掘調査하고 있다. 白磁窯址는 李朝初期 十五, 六世紀에 걸쳐서 優秀한 白磁을 生産하던 代表的인 中央官窯로서 이 調査에서 精緻한 白磁片 多數와 稀貴한 初期靑華白磁片들이 出土되고 있는 바 特히 이 窯址 調査의 意義는 李朝靑華白磁의 始源을 밝힐 수 있는 資料들의 檢出이라고 한다. 이 發掘은 崔淳雨氏 指揮下에 鄭良謨氏 等 三人의 館員이 이에 當하고 있다.

◎ 水原城郭의 補修工事 竣工

지난 五月二十五日 水原城郭補修에 着手하여 華西門·華虹門左右翼牆·訪花隨柳亭左右羽牆과 八達門保護鐵柵工事を 中心으로 工程을 進行, 十一月十六日에 完工을 보았다. 復原은 華城城役儀軌에 따라 施工하였다 하며 監督은 林泉·申榮勳兩氏

◎ 禮山 修德寺 大雄殿 翻瓦工事 竣工

지난 十二月八日 修德寺 大雄殿의 翻瓦工事が 竣工되었다. 監督은 金周泰氏

◎ 梨大史學科 卒業論文發表會

梨大史學科 卒業論文中 考古美術關係는 粉靑砂器大接에 對한 小考 李仲媛 佛像衣紋의 變遷 柳永子 의 二篇인 바 그中 李仲媛嬢이 十二月九日 同科에서 主權하는 發表會에 參加한다.

◎ 慶州 九政里 方形墳 調査

慶州市 九政里(山四一所在) 方形墳은 現在 洞內에 放置되어 있을뿐 아니라 每年 沙汰에 依하여 周圍에 配置된 十二支像들이 날로 埋沒破壞되고 있으므로 이를 補修하기 爲하여 十二月 一日부터 發掘作業이 進行되었다. 東, 北西向의 十二支像은 거의 原位置에 놓여 있으며 南面은 三軀中 已像뿐이었는데 今番 墳前 담장 基礎部에서 나머지 二像과 門扉石 一枚를 發見하여 이제는 完全한 十二支像을 보게 되었다. 地台石은 南面을 除外한 他面에는 殘存하여 있고 北面은 三段으로 護石(面石)結構한 下段만은 原位置에 保存되어 있어 墳墓의 復元도 可能케 되었다. 한편 發掘作業으로 墳一邊의 길이는 三二尺八寸가량 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補修現地監督官 鄭明鎬氏 調査)

◎ 姜甲順女史歡迎會

本會에서는 지난 十四日 밤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의 發見者인 姜甲順女史의 歡迎會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同人數名과 現地에서 隨行한 李獎學士가 合席하였는데 兩人으로부터 發見當時와 그 후 經緯도 詳細히 들었다. 한편 다음날 十五日에는 十一時에 文教部에서 補償金 二十萬圓의 傳達式이 舉行되었다. (同立像에 關하여는 本誌第五卷第一號卷頭に 詳報되었음)

洪城五官里寺址의

幢竿支柱와 石佛坐像

李 殷 昌

洪城邑 東側 골 朝陽門 ①을 나서서 東쪽으로 幾百m를 踏步하면 다



古蹟古物條에 이 遺趾를

洪州邑東約八町、番中有廣景寺蹟、約五百年以水火滅亡、但殘石竿二本、今尙存立、高一丈七尺、其東南番中有石佛立、附近田中發掘石燈籠、今移在于邑人(某氏)家、……略……遺址附近地主墾田作番之際、金佛二體發掘於瓦礎石交雜之中、其高八寸、又有高麗燧器四十枚破片 於是明其爲古寺跡

이라 하였음으로 보아 이것이 廣景寺임을 알겠는데 이 郡誌의 記事는 무엇에 根據했는지 모르겠고 따라서 廣景寺라는 寺名 또한 確言하기는 어렵다. 이 郡誌記事속의 「殘石竿二本」이라 했음은 現存하는 幢竿支柱를 두고 말한 것이요 「番中石佛」은 寺址에 現存하는 石佛立像^②을 말하는 것이며 이밖에 石燈籠이 出土되었다는 바 現今 그 所在을 알 수 없다. 또 前舉 記錄의 註에 依하면 金佛二驅가 出土되어 博物館에 移送되었다고 하나 그 收藏處를 미처 調査치 못했다. 筆者는 이 寺址를 踏査한 바 있는데 殘存하다가 지금은 他處로 옮겨져 있는 石佛座像이 있어 이는 貴重한 遺品이기에 紹介하는 바다.

一、幢竿支柱

住民들이 風水說을 加하여 「침대」^③라고 불러 오는 것이나 實은 花

리(橋)가 나서고 시내가 흐른다. 여기서 左折하여 시내堤防을 타고 二百m쯤 다시 내려가면 바로 寺址가 나신다. 이곳은 寺址라고 傳할 뿐 現在 그 一帶가 田番化해서 불만한 遺物은 없다. 그러나 洪城郡誌 卷之五

崗石製의 寺刹幢竿支柱다.

周邊 地面이 깎여나가서 基壇이 없어졌고 柱脚만이 露出되어 있으며 柱間에 竿臺가 있고 竿臺 中央에는 竿柱를 받치는 直徑約 一尺餘의 圓孔이 있다. 雙柱는 上部로 갈수록 줄어들어 上狹下廣 形態로 뻗어 올라간다. 內側은 杆孔이 있고 背側은 中央에 突帶가 陽刻되었으며 兩側面은 돌으라진 一條의 外緣線을 돌렸고 頂端은 外面을 括아 弧線을 그리어 傾斜를 두었다. 手法이 秀麗한 便이며 高麗樣式 手法을 보이고 있다. (높이 四m)

二、石佛座像

元來 寺址에 있던 것인데 지금은 朝陽門 東側 朝陽閣이라는 屋號를 가진 個人商家의 안마당에 옮겨져 있다.

花崗石을 彫刻한 石佛座像이다. 머리는 螺髮을 表示한 것이나 刻이 分明치 않고 肉髻가 있으나 적다. 兩耳는 길고 얼굴은 둥글다. 白毫는 없고 兩眉는 半月形으로 그려져 있으며 兩眼은 大略 直線으로 뻗어나 갔는데 眞珠로 瞳子를 끼었던 痕跡이 보인다. 鼻線은 우뚝하고 口唇이 彫出되었다. 목에는 三道가 있고 通肩衣에 衣紋은 모두 成段平行衣褶을 表現하여 마치 到彼岸寺 鐵造毘盧舍那佛의 手法에 相通하는 點이 있어 注目된다. 그리고 結跏趺座에 觸地降魔印의 姿態로 보아 釋迦如來坐像임을 알 수 있다.

座臺는 뚜렷하지 못하나 佛像 下側에 蓮花紋을 彫刻한 四角形 蓮花座를 形成하였다. 佛像 後面은 아무런 彫刻이 없어 表現을 省略해서 돌그대로 매진하다. 이 佛像은 成段平行으로 表示된 流麗한 衣褶 등 좋은 솜씨를 보이고 있으나 寫實에 흐르는 顔容의 表情이며 簡略한 蓮花座의 造成 등 그 手法은 高麗時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高一三六cm 座底八〇cm)

註

① 朝陽門 新建記(洪城郡誌卷之五 記文條)「……西曰景義·北曰望華·

東曰朝陽、窺取鳳首山之當關也.

……按景義·望華及南門、今皆撤毀無遺形、但朝陽門即今城東門一

棟現存、而朝陽門三字楣額兵火中遺失無傳」

② 寺址에 現存하는 幢竿支柱에서 시내를 건너 東南쪽으로 있는 石佛立像이나 그 彫刻은 보잘것 없고 住民의 迷信의 行爲에 依하여 石佛에 짐장을 의뢰고 짐도름이를 입혔다.

③ 「집대」는 「뫼대」를 말한 것이니 風水說의 行舟形 地形에는 「뫼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幢竿을 後世에 「집대」로 보는 것이다. 全羅南道羅州邑東門外石幢竿等을 「집대」라고 부르는 것과 相通된다.

橫城 上洞里的 塔像

——橫城佛蹟 其二——

鄭 永 鎬

江原道 橫城郡 公根面 上洞里 上舊國民學校에서 約1km되는 北쪽 골짜기 畵中에 石佛과 石塔이 遺存하며 이곳에서 約3km되는 於仁洞後便山腹岩窟內에 石佛一軀가 있어 一九六三年夏季에 調査하였다.

一、石造如來坐像

花崗石材로 座臺위에 結跏趺座하고 觸地降魔印을 結한 如來像인데 下臺는 雜草石에 묻혀서 調査가 不可能하였다. 螺髮의 頭頂에는 큰 肉髻가 있고 眉間에 白毫가 있으며 兩眉眼과 鼻部 口唇 等이 整齊되었다. 兩耳에 磨損이 있으나 相好는 圓滿하며 口唇에 微笑를 띄어 慈悲스럽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 流麗한 衣文과 左膝上에 올려놓은 右足의 寫實的인 彫法에 注目되었다. 座臺는 上臺가 圓形이며 側面은 複瓣仰蓮으로 裝飾되었는데 그 蓮瓣內는 子房이 있는 花瓣이 彫飾되었으며 下面에는 二段의 刻出되었다. 竿石은 八角인데 隅柱는 없으나 各面마다 長形의 眼象이 銳利하게 陰刻되었다. 坐像의 背面에는 徑四cm(深三·五cm)의 圓孔이 있어 本來는 光背를 具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隣近雜

石에서 火焰文과 二條線이 彫刻된 光背石片을 調査할 수 있어 이것

이 바로 佛像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本洞의 李相俊氏談이라하며 洞民들이 口傳) 이 位置의 前方畵地下에는 長大石이 깔려있음을 耕作時에 確認했다

고 하는데 아직도 附近에는 礎石이 있음으로 보아 佛像의 現位置는 原位置가 아닌가 짐작된다. 實測値는 (cm)像高一三六肩

幅六五 膝高九九 頭高四六 胸幅四〇 膝高三六 上臺徑九六 竿石高三一 上臺厚二二 竿石一石幅二四·五이다. 佛像의 相好와 衣文 座臺等의 手法으로 보아 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現在 頭部는 떨어져 있어 筆者가 調査時에 올려놓았는데 完全히 補強치 못한 것이 遺憾스럽다. 이 坐像에 對한 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一九頁에 보이는데 여기에도 頭部가 折損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앞으로 保存策이 講究되었으면 좋겠다.

二、石塔

